

보도시점 2024. 7. 19.(금) 14:30 배포 2024. 7. 19.(금) 14:00

미(美) 대선 관련 최근 논의 동향 및 중(中) 3중전회 논의 내용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 점검

- 최상목 부총리, 대외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미·중 경제·통상 현안 관련 논의 동향 및 대응 방향 논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19(금) 14:30, 제4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경제·통상 현안 관련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하였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세계(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올해 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이다.

- * (1차) 글로벌 경제현안 및 우리의 대외정책 방향 논의(4.4)
- (2차) 중동 사태의 전망 및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 점검(4.23)
- (3차)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인상 등 주요국 경제·통상 현안

< 제4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4.7.19(금) 14:30 / 정부서울청사
- 주제 : 미 대선 관련 최근 논의 동향 및 대응 방향
중국 3중전회 주요 논의 내용과 우리 대응 방향
- 참석 : (기재부) 부총리, 국제경제관리관, 대외경제국장 등
(전문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초청연구위원 등

최 부총리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감안시, 정권에 상관없이 양국의 교역·투자 등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미국 대선 전개 양상과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중국 3중전회(7.15~7.18) 관련, 중국의 향후 5년 간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번 미국 대선은 2020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경합주*** 선전 여부가 결과를 가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 견제 정책 강화 등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중국의 금번 3중 전회는 경기 회복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있으며, ❶첨단 제조업 중심의 발전 전략인 ‘신품질 생산력’, ❷외자유치를 위한 대외 개방, ❸민생 안정 등을 위한 재정·세제 개혁 관련 동향을 지속 살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 조지아, 애리조나,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네바다, 미시간주(州)

총괄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재완 (044-215-7610)
		담당자	사무관	김미진 (harue87@korea.kr)
미국 관련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심승현 (044-215-7670)
		담당자	사무관	홍가람 (ddallokx2@korea.kr)
중국 관련	기획재정부 통상조정과	책임자	과 장	최동일 (044-215-7650)
		담당자	사무관	박영우 (paxkoreana@korea.kr)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